



전남광주 경제계 “호남 반도체 결단 대통령에 감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남광주지역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집적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전남경영자총협회 등 전남광주지역 13개 경제단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확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성명에는 광주경총을 비롯해 전남경총, 광주건축사회, 광주지방세무사전남광주지역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지회,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광주노무사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육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7월 6

13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군공항 이전·조기 착공 기대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소부장 집적·청년 정착 촉진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사업 추진 성공 위해 역량 결집

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결정할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고 전남광주 경제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클러스터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일본 구마모토에 뒤처지지 않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는 벼랑 끝에 놓인 전남광주의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역 청년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대규모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집적, 연구개발 역량 강화,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등 전남광주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기업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지역 경제계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AI 시대의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남광주 경제계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 국내 최대 ‘심레이싱 e스포츠 대회’ 연다

14일 온라인 예선 거쳐 진행...차량 전시물 등 마련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심레이싱 e스포츠 챔피언십 ‘2026 현대 N 버추얼컵’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부터 시작된 ‘현대 N 버추얼컵’은 지자체, 게임산업계, 자동차 제조사가 협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심레이싱 e스포츠 대회다.

올해 현대 N 버추얼컵의 공식 레이싱 게임으로는 유명 글로벌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인 그란 투리스모 7(Gran Turismo 7)이 채택됐다.

그란 투리스모 7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지난 5월 개최된 현대 N 페스티벌 1라운드에서 진행한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게임 ‘그란 투리스모 7 국가대표 선발전’에 공식 심레이싱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2015년 현대 N 브랜드의 시작을 알렸던 컨셉카인 ‘현대 N 2025 비전 그란투리스모’가 공식 레이싱카로 등장한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예선을 통해 선발된 국내 최상위 선수 24명이 메



인 대회에 진출한다. 이외에도 대학생 대회, 인플루언서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1라운드는 9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게임·e스포츠 행사(GES)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심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현대 N 심레이싱 체험존을 운영하고 DDP 어울림 광장에 다양한 N 고성능 차량들과 WRC, TCR을 비롯한 실제 경주차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2라운드는 10월 30일 옹진 에버랜드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페스티벌 최종전과

함께 진행된다. 스피드웨이 현장에서는 심레이싱 체험 부스와 함께 초동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N e-페스티벌 주니어 캠프도 운영된다.

최종 결승전인 3라운드는 11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게임전시회 G-STAR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현장에서는 심레이싱 체험과 함께 고객들이 현대차 N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N 고성능 차량 및 경주차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N 브랜드 팬덤을 축적하고 e스포츠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국내 게임 산업 및 e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N매지니먼트실 박준우 상무는 “현대 N버추얼컵 심레이싱 대회는 고객들이 모터스포츠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고성능 자동차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대 N을 게임이라는 친숙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환영”

광주상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 전환 중요한 계기”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과 전력망 구축 시기 단축 등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자 지역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공항 부지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획과 준비에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군공항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능을 우선 분산 배치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일정이 클러스터 착공과 기업 투자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이번 방안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1단계 전력 공급선로 구축 시기를 당초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1년 앞당겨 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 입주에 필요한 전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과 전력망 적기 구축이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우대

연간매출 30억 이하 대상...상반기 개업점도 조건 충족시 환급

오는 14일부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 309만4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323만5000개 중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수수료 차액은 오는 9월 28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15만9000개 가맹점 대상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가맹점당 약 38만7000원)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오는 9월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I 콘텐츠 “저작권·초상권 명확한 기준 필요”

콘진원, 신기술 활용기업 8곳과 현장 간담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저작권과 초상권, 결과물의 유사성 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안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기술과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른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수요를 지원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확장현실(XR)·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기업을 비롯해 생성형 AI 기반 영상·미디어아트·음악 기업, 콘텐츠 유통·플랫폼 기업 등 8개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신기술과 AI 도입에 따

른 콘텐츠 제작 공정 혁신을 비롯해 저작권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기업 간 기술 협력과 네트워킹 확대 등을 건의했다.

콘진원은 올해 ‘AI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200% 확대해 총 5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선도형과 장르·신기술 융합 및 플랫폼·솔루션 실증을 지원하는 진입형,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연계한 협력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춰 지원 효과를 높여겠다는 취지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의 통해 수요 맞춤형 컨설팅과 기업 간 협업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지원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진 기자 pose007@

한전, 네이버페이로 전기요금 청구·납부

양사간 협약...청구서 확인·간편결제 가능

한국전력이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모바일 기반의 전기요금 청구·납부 서비스 디지털화에 나선다.

한전은 11일 네이버페이와 ‘전기요금 청구·납부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요금 전자문서 청구서 발송과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납부 체계 구축, 청구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에 협력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은 네이버 앱을 푸시 알림으로 전자청구서를 받아 전기요금 청구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얼굴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 간편인증을 거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전력서비스 플랫폼 ‘한전 ON’과 종이청구서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서도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